

豐 嶺

1988

全州文化院

(文公部 登録番号 第4-962号 登録日字 1981. 8. 10 郵便番号 560-020 隔月発行)

地域文化・地域人情・地域情報

靈 嶺 46

1988年 6月

創刊 10周年 기념호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

□...지혜로운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 編 · 輯 · 後 · 記

□...창간 10주년 기념호를 엮었다. 창간호 체제를 계속 고집해 오다가 86년 8월호인 통권 37호부터 세로의 편집을 가로로 편집으로 바꿨다. 그때만해도 대단한 변화를 앞두고 이랬으면 좋을까 저랬으면 좋을까 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

다시 88년 3월호인 통권 45호부터 활판인쇄를 사식인쇄 체제로 변화를 가했다.

이번에는 표지의 칼라인쇄를 시도했다. 10개성상 동안 한가지 한가지씩 조심스럽게 변혁을 해온 노령은 그만큼 독자여러분의 잡지라는 겸허한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창간 10주년 기념 자축연을 갖기로 했다. 줄잡아 2천여 분들께서 집필해 주셨다. 이 2천여분을 초대하여 그동안 원고료없이 귀한 글을 써주신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고자 함이다.

아울러 노령의 발전을 위해 협찬을 해주신 광고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지역문화 지역정보 지역인정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독자와 필자, 광고주 제현의 아낌없는 편달을 기대하며 누구보다도 감회 깊은 편집후기를 쓴다. <宋>

蘆 嶺 第46號 1988年 6月

1988年 5月 25日 印刷 / 1988年 6月 1日 發行

《非 賣 品》

發行人 · 金 光 鎬

編輯人 · 張 明 洙

(「蘆嶺」編輯委員會)

印刷人 · 咸 清

文公部 登錄番號 · 바-962號 登錄日字 · 1981年 8月 10日

發行所 · 社團 全州文化院
法人

全州市 慶園洞 1街 58의 4 ☎ ⑥ 7500

印刷所 · 鮮明印刷社 ☎ 84-0030-84-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 實踐要綱을 준수한다.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地域文化
地域人情
地域情報

蘆

嶺

創刊 10周年 기념호 1988年 6月 第46號 目 次

- 8 卷頭隨想 / 풍요는 정신적 빈곤을 초래 張明洙
10 反省과 摸索의 西海岸시대 金光鎬

연중 특별기획 · 우리 옛 풍습찾기 시리즈 ②

● 어린이 옛놀이 찾기와 오늘의 전승대책 ●

* 어린이 옛놀이 의의

- 12 참다운 기쁨으로 모두 즐기는 놀이의 재현 吳鎭求
18 消長거듭하는 놀이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 楊萬鼎
24 즐겨짓는 농사의 계절마다 어린이 놀이 많아 朱明俊
30 농사의 시작에서 수확기 · 농한기로 이어진 놀이 吳炳武

* 어린이 옛놀이 형태

- 36 협동심 체력단련 모든 요소 골고루 갖춰 羅鍾宇
45 우리 고유의 놀이에 높은 기상과 금지 담겨져 全壹煥
51 학교 현장학습에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전승 白晳欽
57 현대 어린이들도 부담없이 즐기도록 개발 趙淑姬
66 어린이 성장에 훌륭한 교육적 가치 지녀 金京中
76 규칙 준수와 협동심 · 경쟁심리를 유발 韓貞男

* 어린이 놀이 변천

- 84 놀이의 변천은 사회의 성장과정과 상관 安 燕

* 옛놀이와 현대놀이 비교

- 90 전자 오락기에 옛놀이를 프로그램化 보급 金寶金
99 전통놀이 바르게 알아 즐기도록 金玉葉

* 어린이 옛놀이 자료

- 109 놀이문화는 조상들의 끈끈한 혈맥 編輯室

126	*李鎭增칼럼 / 少年을 自然으로	李鎭增
128	*醫 境 / 백내장 수술	柳承國
132	*生活과 宗教⑤ / 기복 신앙의 문제점	金榮錫

* 主 題 있 는 散 文 *

130	* 좋은 글귀풀이 / 雞 肋	柳豊淵
131	* 우리말 우리글 / 약 밥	崔昌烈

詩	138	물왕물 이야기	朴萬琪
	140	이름도 없는	魯珍善
	142	春 困	朱奉求
	144	詩가 小說에게	李東熙
	146	부 영 이	소재호
	148	강한 욕심	李海英

수	150	교만과 겸허.....	高光羽	
	151	내 탕	高三坤	
	152	가 로 수	孔淑子	
	154	담쌓기 작업.....	金景喜	
	156	꽃을 보며.....	金恩實	
	157	數字 컴플렉스.....	金苧雲	
	160	完營過客	朴景植	
	162	음악을 들으면.....	朴芝蓮	
	필	164	벚꽃길 일백리.....	宋永萬
		165	하 나	申龍植
		167	간디와 마지막 황제	임동조
		169	나의 친절.....	田善子

134	*全州風物記⑥ / 全州川邊	宋榮相
172	*續「나의 文學 60年」② / 海剛日記抄	曹圭華
176	편집후기	

약 밥

崔 昌 烈 <全北大 교수>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붉은팥을 놓은 찰밥으로 약밥을 지어 먹는 습속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유서 깊은 전래풍속에서 기인한다. 어찌하여보름날 약밥을 지어 먹기 시작했을까?

신라 21대 소지왕 10년 정월 대보름날에 왕이 天泉亭에 거동하였을 적에 까마귀와 쥐가 울더니 쥐가 말을 하여 까마귀를 따라가 보라 했다. 왕은 騎士를 보내어 따라가 보게 했다. 남쪽 避村 마을에 이르러 까마귀는 사라지고 한 노인이 연못에서 나타나 글을 바쳤다. 이 글을 기사를 통해 왕이 받아 보니 겹봉에 쓰였으며 봉투를 떼어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 떼어 보면 한 사람이 죽는다. 하였다. 안 떼어보려 하는 왕에게 日官이 그 한 사람이 왕 자신일는지도 모르니 뜯어 보자고 하여 열어 보았더니 '금궤를 쏘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내전 있는 금궤에 활을 당겨 쏘았더니 내전에 드나드는 중과 중전이 간통을 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마침내 봉투를 뜯은 결과로 왕은 죽음을 면하였고 금궤 속의 간통하던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였다. 까마귀의 안내로 왕비의 비행을 끊게 했으므로 그 다음부터 이 까마귀에게 대보름

날만 되면 매년 찰밥을 지어 보답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때의 찰밥은, 찰쌀로 밥을 지을 때에 붉은 울콩과 붉은 팥 그리고 밤 대추 기름 꿀 간장 등을 함께 넣어 쪄서 익힌 후 잣을 박아 맛을 내는데 이를 藥食 藥飯 또는 순우리말로 약밥이라한다. 꿀을 우리 언어 관습에서 약이라고하기 때문에 붉은 이름이다. 그 원래 뜻을 살려 꿀밥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붉은 대추와 팥을 놓는 까닭은 재앙의 나쁜 귀신을 붉은 빛깔이 쫓는다고 믿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밥은 한해의 무서운 재앙을 미리 막는다는 의미가 서려 있어서 정월 보름 명절에 명절음식으로 꼭 챙겨서 지어 먹는 풍습이 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찹쌀, 대추, 밤, 기름, 꿀, 잣 또는 호도 등은 모두 향기와 맛도 좋거니와 고농도의 강정식으로서 농가에 한 해 동안 땀 흘려 힘써 일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이 약밥은 그 현대적 의의를 충분히 지니고 있어서 우리 선인들의 건강식에 대한 지혜를 다시 한번 놀라와 하지 않을 수 없다.

全州川邊

宋 榮 相

〈全州文化院 常任理事〉

● 선거바람

80년대 들어 서면서 음식점을 비롯한 각종 유흥업소들이 주택가에도 파고 들었다. 여관 찾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이 눈에 띄는 여관에서 편한 잠을 자고나서 여관 옆집에 붙어 있는 음식점에서 숙취를 풀 수 있는게 요즈음의 세상이다.

50년대의 전주 인구는 10만이 미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관도 저하고 음식점도 한참 찾아 나서야 밥 한그릇 먹을 수 있었다.

지난 13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아침 저녁 때를 가리지 않고 북적댄 음식점을 보았을때 감회가 깊었다면 그렇고 하여튼 간에 무심하게 넘길 수 없는 생각에 젖었다.

1948년 5월 10일에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참의원 대통령선거 등 많은 종별의 선거를 치뤘다.

선거형태가 갈수록 인정이 매마르고 자금과 멋이 남발하는 양상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소달구지 또는 리어카에 확성기를 싣고 다니며 유세 일정을 알린다거나 즉석 연설을

하기도 했다.

입후보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어떤 후보는 신문지나 한장 한장
기호와 이름 정당 구호 등을 써서 게첨 하기도 했고 단색 인쇄의
벽보를 제작 하였다.

요즈음 칼라시대에 아크지에 코팅까지 한 칼라판 벽보를 한장소
에 수십장씩 게첨한 것을 보면서 50년대의 선거벽보를 생각하면
만시지탄감이 없잖아 있다.

유세장에서 일 또한 소박한 인정이 넘쳤다. 대부분의 유세장은
천변의 고수부지, 넓직한 빈터, 때에 따라서는 국민학교 운동장에
서 벌어졌는데 유세장 한쪽에 후보자별로 천막을 치고서 국수를 삶
고 돼지고기를 삶는다거나 하는 푸짐한 먹을거리의 음식과 함께
막걸리 한사발씩 얻어 먹을 수 있었다.

막걸리 선거라는 말은 바로 유세장에서 얻어 먹는 막걸리잔의 뜻
인데 사실 점심 때가 지난 시간의 유세를 들으러 온 청중에 대한
감사의 인정이기 때문에 소박한 생각으로 선거법 저촉 시비 운운
은 지나친 것같은 일이다.

사실 유세가 시작되기 전에 막걸리 한잔이라도 마시면 쪼그리고
앉아 듣거나 장시간 서서 듣는 청중을 끝까지 붙들어 놓은 방법이
기도 했다.

또 고무신 선거라는 말도 재미있는 일이었다. 최근에는 흰고무
신도 신지않고 있는 세상이지만 당시는 검정고무신 한켠레면 큰 생
색이 되었다. 동네의 유지 또는 '가족이 많은 유권자의 가정에 몇켠
레의 남녀 고무신을 보내면 발에 맞지 않은 고무신을 바꾸려는 시
장 고무신집은 법석을 떨었다.

현금을 봉투에 넣어 우송하려다 적발되었다거나 음식집에 물린
계꾼들이 정당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밥값을 치루도록 했다거나 서
울 아파트군에서의 일로 고급 담요를 집집마다 돌렸더니 국산담요
를 누가 쓰느냐고 모두 아파트 경비원을 주르로서 경비원이 시장
에 내다 판았다는 등등의 일은 당시에 상상도 못할 선거바람이
었다.

● 해장국 집

전주의 콩나물국밥은 이제 전국적인 명물음식이 되었다. 누구나 전주에 다녀왔다고 하면 콩나물 국밥 맛이 어찌고 해야 되고 또 전주에 간다고 하면 잊지 말고 꼭 콩나물 국밥을 먹고 오라고 한다고들 한다.

이 콩나물 국밥과 같은 명물음식^{1.5.5.5}이기에 비빔밥이 있긴 있지만이 자리에서는 콩나물 국밥만 이야기 하기로 한다.

콩나물 국밥을 일명 해장국으로 불리운다.

필자가 과분한 탓으로 혹 이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주의 유명한 콩나물국밥 해장국 하면 한일관으로서 한일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완산동에서 부터 시작된 콩나물국밥 전문집을 알아 본다.

현재 완산동 원각사 골목에 오씨가 문을 연 오씨집으로 통한 콩나물 국밥집이 전주의 콩나물국밥으로는 유명했다.

그후 완산교 머리에 도래팀와 김제과 두집이 있었는데 도래과는 한옥이었으며 김제과는 한식으로 2층집이었다. 이두 ^{2.5.5.5}양과집의 해장국 또한 전주천을 끼고 번성했음은 전주천 고수부지가 사람끄는 장소로 유명하긴 유명했다.

장터부터 시작해서 난장 놀이터 등등으로 전주천은 지금처럼 시민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다음으로 현재의 한일관은 남부시장 가구점 골목에서 한일옥으로 개업을 하고 다시 한때 양키골목이라고 불리운 남부시장 옆으로 나온 민생병원 자리로 옮겨 앉아 번창할 때 까지는 복쟁이가 유명했다.

그러다가 시내 중심가로 파고 들어와 수도여관 골목에 옮겨 앉을 때 한일관으로 옥호를 바꾸고 입구 골목에는 하얀 차들을 깔고 현관문은 고전적으로 단장하고서 전주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는 콩나물 국밥을 해장국으로 내놓게 되었다.

한때는 손해를 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하여 당시 행정당국에서 다소의 지원을 해 준것으로 전해진 말도 있었다.

현재의 자리에서 한일관이 이전개업할 당시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점심 때는 해장국을 팔지않고 일정량을 판매하고 나면 문을 닫는다는 그런 유머가 떠돌아 심지어는 꼭두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정도였다.

한그릇 한그릇씩 숯불에 끓이는 특징이 더 유명세를 부채질 했는가를 모르겠으나 최근엔 가스불로 잠시면 뜨겁게 끓여 앉자마자 먹을 수 있어 좋긴 좋다고들 한다.

● 양식전문집

동서관통도로가 뚫린 뒤로 전주의 옛날 지형을 토박이도 잘 모를 때가 없잖아 있다. 그만큼 도시계획은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켜주는 큰 힘을 갖고 있다.

현재의 전주시보건소 앞 길은 변화상가를 빗나간 느낌이 있지만 당시에는 활기찬 거리, 아울러 새로운 문물이 먼저 들어온듯 항상 새맛을 느낄 수 있는 거리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식전문음식점 신천지였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양식집이 두어곳 뿐이었기 때문에 신천지의 오무라이스, 카레라이스, 런치 등은 된장맛에 찌든 전주사람 입맛을 돋궜다.

사실 런치도 함박스틱 비후가스 돈가스 등 여러 종류이며 또 고기만 해도 날고기 조금 익히고 많이 익히는 등 조리도 여러 형태가 되지만 그때는 오직 런치 하나였다.

요즈음 어린이에게 당시의 런치 형태로 만들어 주면 별맛이 없다고 하겠지. 빵가루 입힌 고기 한점 채친 양배추 다꾸왕이라고 했던 단무지 두어쪽 아깝게 뿌려준 케찹 그리고 쌀밥 한주걱 등이 전부인 런치를 칼과 스푼으로 오래토록 찌르고 찍어먹던 식사, 더구나 칼은 어느손으로, 스푼뒷등으로 밥을 약간 떠먹는다는 등 까다로운 식사법을 아는채 하던 그 시절에는 기가 막히게 맛있던 양식 런치였는가도 모를 일이다. ㄸ